"...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 "(미6:8)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매일 매일 고민하게 됩니다. 무엇인가를 하고 싶고, 계획을 세우고 싶고, 세운 계획을 이루기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많이 있지만, 잠잠히 내려놓습니다. 이게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무엇이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기다리는 것!!!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겸손하게 나아갑니다.

1. 감사한 일들

투루다임 에제 장례식

이번 달에는 우즈겐 성도들에게 큰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간질병으로 앓고 있던 투루다임 에제가 주님 품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마을 공동묘지에 묻을 수 없다는 이슬람 지도자와 마을 지도자들로 인해 큰 어려움이 있었지만, 함께 기도해 주신 기도로 인하여 무사히 마을 공동묘지에 장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를 잃고 비쉬켁 아들네에서 쉼을 갖고 있는 사파르 아저씨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3월 4일에 고향으로 돌아와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아내의 빈자리로인해 아프지 않도록, 그리고 믿는 성도들의 장례마다 겪는 어려움인데, 장기적인 대책이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1월 28일 현지 사역자와 회의

지난 달에는 현지인 사역자 미를란/아가임 가정과 함께 올 한해 우즈겐을 위한 사역회의를 가졌습니다. 무엇보다 끼니 금식기도로 한 해를 시작한 우즈겐 성도들에게 감사하고, 올 한해 주님 안에서 성장하기를 소망하는 저들로 인하여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올 해에는 우즈겐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서 저희가 다른 지역으로 사역을 옮기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월 오쉬 인근 지역 현지 조사

2월 15일에는 오쉬 인근 도시 가운데 한 곳인 '카라수'라는 지역 조사를 위하여 현지인 사역 자를 만나 면담 조사를 가졌습니다. 카라수는 중앙아시아의 최대 도매 시장으로 새로운 실크로 드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경제 도시입니다. 그곳에는 아직 알려진 교회나 가정모임이 없습니다. 새로운 교회 개척팀이 구성되거나 우즈겐 가정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지면 카라수 지역과 '아라반', '노오캍', '총알라이' 지역에서 교회 개척을 하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시사 개원

2월 3일에 시사 어학원 새 학기를 시작했습니다. 50명이 넘는 학생들이 등록을 했습니다. 저는 16명의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새로운 만남으로 인해 감사 드리고, 내년 비자 신청을 위해, 온라인으로 영어교사 자격증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필요가 채워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오쉬 MK 학습센터 도서관 이사

지난 주에 기도제목으로 나누었는데, 많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토요일(2/22)에 도서들과 집기들을 잘 이사했습니다. 아직 도서관 공간을 마련하지 못해서 여러 곳으로 나누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도서관을 위한 독립된 공간을 마련해야 하는데, 여러모로 부

족한 상황입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2. 기도제목들

3월 2일 오쉬에서 연합예배

이번 주일에는 우즈겐 성도들이 오쉬에 있는 현지인 교회와 함께 연합예배를 드립니다. 현지인 성도들과 교제와 연합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 길에서 오는 우즈겐 성도들의 안전과 예배 이후 저희 팀과의 교제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깊은 나눔과 영적 교통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문을 통하여 지난 달에 주님을 영접한 사틉알릅 바이케와 아내가 성숙한 우즈벡 성도들과 좋은 교제를 갖을 수 있도록

현지인 사역자 미를란/아가임 부부를 위하여

미를란 부부에 약간의 힘겨움이 있습니다. 보통의 부부들처럼 겪는 갈등이지만 때로는 위태롭게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아내 아가임이 믿음과 지식이 더 좋다보니 남편 미를란이 약간의 열등감을 겪는 듯 합니다. 어떻게 도와야 하고, 세워주어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성숙을 향한 작은 몸부림이지만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극복하기 어려운 시기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물질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지하는 사역자 부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가정 교회 정착과 우즈겐 모임을 위하여

쇼로보쇼(아이추럭), 즐란드(다리카), 이리수(샤파르) 마을에 가정모임이 매주 잘 모일 수 있도록, 가정들마다 기도제목이 많습니다. 기도응답이 있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히, 아이추럭을 위해서 마음을 모아 주십시오. 남편으로부터의 외로움, 홀로 신앙을 지키는 외로움으로 인해 마음을 많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봄부터 시작할 예정인 크즐토(카를가츠) 가정모임이 잘 시작할 수 있도록, 지난 일 년 동안 직간접으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들었던 우즈겐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거주권

거주권을 잘 신청했습니다. 지금은 3군데의 기관에서(정보부, 경찰서 등) 서류를 검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속히 서류들이 무수히 통과되고, 거주권 위원회에서 좋은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매월 11일 우즈겐을 위한 기도하는 모임과 새로운 팀 동료들을 위하여

이 땅에는 아직도 미전도지역이 인근이 너무나 많은데 떠나는 사역자는 있어도, 새롭게 오는 사역자들이 없습니다. 음을 전할 사역자들이 더 많이 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 * 사역이 넓어지면 필요들이 참 많습니다. 겨자씨 편드와 마쉬나 편드, MK 도서관 설립을 위한 필요들이 채워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 아이들 교육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아이들을 위하여 부모처럼 기도해 주실 분들과 연결되기를 소망하고, 아이들이 장래 교육에 좋은 지혜를 얻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